

全南大 경영학과의 講義評價制 모색

—교수강의평가 實施事例 ④—

孫 基 亨

(全南大 經營學科)

교수강의평가 實施事例

1. 한신大學의 教授講義評價制
2. 廣熙大學의 敎養科目 중심 講義평가제
3. 嶺南大 상경대학의 講義評價
4. 全南大 경영학과의 講義評價制 모색
5. 교수 個人別 실시(1)
6. 교수 個人別 실시(2)

1. 들어가는 글

최근 수년간 講義評價制는 많은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의 실시를 위한 노력들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강의평가제가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내용과 결과의 활용수준은 당위적 차원에서의 실시와 기초적 수준의 활용에 머무르고 있는 듯이 보인다. 全南大學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93년 1학기부터 본부의 권고로 자발적인 참여의 형태를 띤 강의평가제가 조심스럽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

며 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한 컨센서스는 모아지지 않는 상태이다.

全南大學校 經營大學의 경우, 본부의 권고와 있기 전인 지난 92년 1학기부터 다수의 교수들이 상호 협의하여 강의평가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해 왔다. 經營學科 역시 講義評價制 실시에 긍정적인 교수들을 중심으로 평가분항의 공동작성을 계기로 강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 전체의 협의에 의한 전반적인 실시는 아니지만, 다수의 교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료분석과 결과의 통계분석에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講義評價制를 대학의 질적 발전에 필요한 제도로 보고 이의 실시를 가정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물론 강의평가제의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은 교수 개개인의 필요성 인식과 강의의 주·객체 간의 공감대 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지만, 강의평가제 자체에 대한 논의는 전남대 경영학과의 경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수 및 학생들의 인식, 현단계 강의평가제의 성격 등을

살펴본 후 실시사례를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講義評價制에 대한 인식

강의평가제 실시에 대해 평가자인 학생과 실질적 시행주체인 교수의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및 반응은 실시의 내용, 방법과 그 활용에 관련이 된다. 이는 강의평가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은 이 제도의 실시를 반대하는 입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 평가방법과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들이 있기 때문이다.

講義評價制 실시에 대한 인식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로 평가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강의평가제 실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교육자인 교수가 피교육자인 학생의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傳統的 教育觀으로 보아서는 수용하기 어려우며 학생들 또한 교수의 강의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評價者인 학생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실시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고, 따라서 당연히 그 실시를 부정하게 된다. 인기에 영합하는 강의가 출현할 수 있으며 불성실하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답변으로 인해 강의평가제가 일부 집단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존의 대학 구성원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또는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포착,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실시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나 그 절차나 활용방안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것은 필자를 비롯하여 강의평가제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는 많은 교수들의 인식이라 생각한다. 대학의 질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강의평가제가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만, 실시의 주체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고 충분한 경험과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도입은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제도의 본래 의미를 훼손시키고 오히려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이다.

셋째는 전면실시이다. 강의평가제 실시에 대한 문제인식은 두번째와 유사하나 그 실시가 보다 전면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대체로 각 대학 학생회의 임장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가진 대학구성원들 또한 강의평가제 실시의 현실적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두번째의 점진적 실시로 서서히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강의평가제에 대한 인식은 크게 실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긍정적 인식의 대부분은 漸進的 實施를 현재 실시해야 할 강의평가제의 성격으로 파악한다고 할 수 있다. 全南大 經營學科에서 강의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교수들 또한 현단계의 講義評價制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강의평가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료축적과 실험 및 훈련과정으로 파악하여 제도의 점진적 실시를 전제로 상호협의하에 공동으로 작성한 평가설문을 사용하고 있으나 결과의 활용은 교수 개개인에 일임되어 있다.

필자는 지난 92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및 임시총회에서 발표한 강의평가제 실시 결정과 뒤이은 보류방침을 천만번 다행스런 조치라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껏 도덕과 윤리에 입각한 강경론과 명분제일주의에 의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이 무시되고, 좋은 제도가 여건의 미성숙, 훈련부족,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고려 및 예측 불충분 등으로 사장된 예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어느날 갑자기 필요성에 대한 인식만으로 講義評價制를 실시한다면 이 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객관적 당위성은 충분하다 하더라도 施行主體인 교수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확신하지 못하고 評價의 主體인 학생들이 제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면적 실시는 부작용만 극대화시키고 제도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全南大 經營學科에서 작성된 설문을 간략히 소개하고 구체적인 실시

사례와 결과의 분석을 중심으로 강의평가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3. 講義評價制 실시사례 :

全南大 經營學科

1) 실시배경

全南大의 경우 大學本部의 권고로 자발적 참여에 의한 강의평가제 실시가 이루어진 93년 1 학기를 제도 도입의 시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수들의 자체평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특히 經營大學은 여러 교수들이 타단과대학들보다 앞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에 강의평가제 실시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에 덧붙여 강의평가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 또한 개별적 차원에 머무르던 강의평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애초에 학생들의 관심은 모든 강의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실시에 있었다. 그러나 교수들의 강의평가제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접근이 학생들의 급진적 요구를 설득 완화시켜 實施時期, 方法과 內容, 活用方案 등에 대한 교수 학생 간의 의견충돌은 전혀 없었다. 또한 교수들 역시 학생들의 강의평가제 실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기왕에 개별적으로 실시해 오던 강의평가를 좀더 公式化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설문 작성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의견교환을 통해 설문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실시하게 된 것이다.

실질적인 學科 차원의 강의평가가 실시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은 개별적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해 오던 교수들간에 의견교환과 정보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 점은 어느 대학에서나 구체적 실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이라 생각한다. 강의평가제 실시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비록 작은 양의 정보라 할지라도 이를 서로 공유하며 연구할 수 있는 기회는 보다 큰 단위에서의 제도정착을 위한 자료와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2) 평가설문의 구성

평가의 목적은 향후 정착될 강의평가에 대한 대비로서 간단하면서도 충분한 강의 評價資料의 開發 및 평가를 위한 학생들의 訓練에 초점을 맞추었다. 평가는 무기명 평가설문을 통해 이루어졌고 평가항목은 크게 평가자에 대한 항목, 강의주제에 관한 항목, 교재 및 부교재에 관한 항목, 강의 환경에 관한 항목, 시험·과제물·성적평가에 대한 항목, 담당교수의 강의에 대한 항목, 다른 과목과의 비교를 통한 교수·강의주제·교재·부교재에 대한 상대적 평정, 마지막으로 객관식 문항에 반영될 수 없는 주관적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자 자신에 관한 항목을 설정한 것은 평가자의 학년과 전공선택, 전공필수, 교양 등과 같은 강의의 성격, 학업성취수준 등의 객관적 사항과 기대성적 및 평가자가 느끼는 강의에 대한 주관적 난이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항목인 주관식 항목 앞에 교수, 강의주제, 교재 및 부교재 등에 대한 상대평정란을 두어 평가자들이 자신의 평가를 종합하도록 하였다. 이는 자칫 講義評價 자체가 전적으로 이 항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으나, 평가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할 수도 있다. 물론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相對的 평정은 강의평가제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교수들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교수들의 강의평가에 대한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를 학생들에게 보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진지하고 성실한 평가자세를 유발할 수 있어 단순한 평가 이상의 교육 효과도 있다고 보여진다.

평가설문의 응답은 5점척도로 이루어지고 분항수는 현재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편이다. 이는 주관식 설문이 갖는 단점인 추상적 응답 및 평가자인 학생의 독단적, 감정적 판단을 방지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평가의 여러 측면을 스스로 인식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같은 의미의 설문이 긍정과 부정의 다른 형태로 중복되어 주어지는 것 역시 진지하지 못한 응답은 결코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교자 한 것이다.

3) 평가의 내용과 분석

현재로는 평가의 결과에 대한 요약과 분석방법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면서도 충분한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는 評價書의 開發을 위한 분석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설문 문항들을 소개한다.

I. 강의 주제에 관한 항목

1. 강의 주제가 흥미롭다.
2. 전공에 적합하다.
3. 공부할 가치가 있다.
4. 중요한 주제이다.
5. 실용적 가치가 있다.
6. 지적 자극을 준다.
7. 도전해 볼 만한 주제이다.
8. 필요없는 주제이다.

II. 교재 및 부교재에 관한 항목

1. 좋은 교재이다.
2. 혼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쓸모없다.
4. 실용적이다.
5. 흥미를 유발한다.
6. 강의 내용 이해에 도움을 준다.
7. 교재가 부적당하다.
8. 즐길 만하다.
9. 싫증난다.
10. 교재의 난이도는 적당하다.

III. 강의 환경에 관한 항목

1. 강의실은 청결하다.
2. 강의실이 정리·경돈되어 있다.
3. 강의 보조 도구는 구비되어 있다.

IV. 시험, 과제물 및 성적 평가에 관한 항목

1. 학업성취도 평가척도로서 가치가 있다.
2. 평가기준, 방법 등이 명확하다.
3.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다.
4. 문제는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
5. 시험 또는 과제물 내용에 함정이 있다.
6. 시험 또는 과제물 내용이 조잡하다.
7. 시험 또는 과제물 내용이 막연하다.
8. 시험 또는 과제물이 의미 없다.
9. 과제물의 양은 적당하다.

V. 강의담당 교수의 강의에 관한 항목

1. 강의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크다.
2. 강의자의 차림새는 단정하다.
3. 강의준비와 강의가 성실하다.
4. 강의내용이 체계적이다.
5. 수업진도가 빠르다.
6. 수강이 즐겁다.
7. 강의가 지적 자극을 준다.
8. 강의 내용이 명확하다.
9. 강의 내용이 기대한 바와 일치한다.
10. 강의 내용이 논리적이다.
11. 흥미를 유발시킨다.
12. 내용을 완벽히 설명한다.
13. 강의가 지적 사고를 유도한다.
14. 강의가 혼란을 가중시킨다.

모든 문항은 5점척도로 평가되며 평가자 자신에 관한 항목과 마지막 항목인 강의자, 강의 주제, 교재 및 부교재에 대한 상대적 평가항목은 소개에서 제외하였다. 보다 바람직한 評價書의 開發을 위해 경영학과 한장희 교수는 네 명의 교수에 대한 92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서 총 367매를 要因分析方法으로 분석하였다. 한장희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강의주제에 관한 항목들은 '專攻關聯度'와 '實用性'의 두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교재에 관한 항목은 '興味誘發度'와 '學習補助度'로 이름지을 수 있는 두 요인으로 대변된다. 마지막으로 담당교수 강의에 대한 항목은 '講義體系性'과 '知的 刺戟性'이 두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이 분석에 근거하여 한장희 교수가 제안한 각 항목별 강의평가서 설문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의환경에 관한 항목은 교수들의 강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로 보고 제외한다.

I. 강의 주제에 관한 항목

1. 전공에 적합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2. 실용적 가치가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3. 지적인 자극을 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II. 교재 및 부교재에 관한 항목

1. 좋은 교재 및 부교재를 사용한다.
2. 혼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강의 내용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III. 시험, 과제물 및 성적평가에 관한 항목

1.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명확하다.
2. 시험 또는 과제물의 내용이 명확하다.
3. 과제물의 양은 적당하다.

IV. 강의담당 교수의 강의에 관한 항목

1. 강의자의 목소리는 알아듣기에 충분하다.
2. 강의자는 강의준비와 강의에 충실하다.
3. 강의내용이 체계적이다.
4. 수업진도가 적당하다.
5. 수강하는 것이 즐겁다.

참고로 평가서의 마지막 문항인 교수, 강의주제, 교재 및 부교재에 대한 상대평가와 위에서 소개한 다른 항목의 문항들간의 상관관계는 충분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응답이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불성실하고 감정적인 응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밝혀줄 것은 분석대상이 된 각 교수들의 설문지 수도 다르며 要因分析의 결과도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점은 보다 많은 자료의 축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4. 講義評價制의 전망과 과제

여러 연구와 대학들의 실시선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전담대 경영학과의 강의평가제 실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들간의 共感帶形成과 학생들의 評價能力이었다. 강의평가의 형식을 갖춘 본격적 평가는 90학년도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으며, 초기 단계의 평가는 기말시험지의 일부분을 활용한 학생들의 주관적 견해의 수집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의 객관적, 합리적, 분석적인 평가능력에 대한 회의와 평가틀의 부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며 교수들간의 서로 다른 이해와 견해가 보다 나은 평가틀의 개발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면에서 본다면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교수들의 의견도 실시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과는 상관없이 결코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은 평가결과의 남용 가능성이다. 대학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講義評價制度의 진정한 의미와 취지를 공감하지 못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사욕에 악용한다면, 아무리 좋은 평가의 틀을 마련하고 시행을 권고한다 하더라도 많은 교수들이 참여에 주저할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교수의 승진인사에 대한 평가결과의 반영 등 현 상황에서의 급진적이며 다소 과격한 활용방안은 오히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지만 보람 있는 성과마저 무의미하게 만들 소지가 있으며, 진정한 제도의 정착을 바라는 많은 교수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는 인기에 영합하는 강의의 등장과 평가제도의 악의적인 남용 가능성 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講義評價制度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교수들만의 우려는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필자는 현재의 강의평가제를 완결된 형태로 보기보다는 정형을 찾기 위한 평가자인 학생들의 훈련과 자료 및 경험의 축적과정으로 파악한다. 물론 교수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지금까지의 강의경험에 의해 평가준비가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가자인 학생들이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들에 의한 평가는 무의미하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저학년 학생들의 評價參與排除 의견에 반대한다. 저학년 학생들의 평가참여 배제가 강의평가제의 조속한 실시와 단계적 활용을 고려하여 제시된 의견이라면 그 급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강의평가제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훈련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고학년이 될수록 지적, 인간적 성숙이 평가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바이나 훈련없이 학생들의 성숙만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評價資料와 經驗의 지속적인 蓄積과 이를 통한 간단명료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評價書を 開發하는 일이다. 앞서 소개한 한장희 교수의 분석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아직은 자료와 경험이 충분치 않다. 필자의 견해로는 최소한 5~6학기 정도의 기간 동안 학생들의 訓練과 평가를 염두에 둔 實驗的 講義評價制의 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강의평가제는 傳統的 教育觀에서 보나 현

실적인 상황에서 보아도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시되어야만 교수, 학생 등 대학 구성원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 맺는 글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한 제도의 소개가 아니라 여건에 맞는 정착이라면, 제도의 시행은 보다 신중한 계획하에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하고 문제점과 부작용의 소지를 제거하며 전체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순간에라도 제도시행의 주·객체가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가져올 부작용이 그것의 혜택보다 크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 집단간에 반발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제도의 시행방법상

잘못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大學教育의 發展을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 새로운 講義評價制라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金光秀(1993), “한신大學의 教授講義評價制”, 『大學教育』, 93. 5/6월호, 통권 63호.
- 朴貞潤(1993), “嶺南大 상경대학의 講義評價”, 『大學教育』, 93. 9/10월호, 통권 65호.
- 元應淳(1993), “慶熙大學의 敎養科目 중심 講義평가제”, 『大學教育』, 93. 7/8월호, 통권 64호.
- 李鍾昇(1992), “學生에 의한 教授講義評價制”, 『大學教育』, 92. 11월호, 통권 60호.
- 韓棟熙(1993), “경영대학의 「강의평가서」에 대한 평가”, 전남대 자체분석자료.